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동서대 공모전, D-MAP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제공해



▶D-MAP 동기부여 하계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

‘Design as Change Maker’ 주제로 ‘동서 국제디자인 위크 2019’ 행사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동서대학 주례캠퍼스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 된다. 이번 국제 디자인 위크에서는 디자인 가장 5명이 초빙되어 개인 전시회·특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디자인이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전해줄 예정이다. 초빙된 디자인 석학은 이탈리아 이코 밀리오레, 한국 권영걸, 미국 마이클 프린스, 대만 루딩방, 중국 구원시이다.

이번 행사는 동서대 학생 뿐 아니라 일선고교 교사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것이며, 이는 지역에 공헌하는 동서대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9월 3일에는 센텀캠퍼스 아트스홀갤러리에서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Lightmorphing 전시회’가 열린다. 이코 밀리오레 교수는 라이트모ρφ링 개인전을 통해 빛, 구조 그리고 공간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 디자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9월 4일에는 주례캠퍼스 문화센터에서

석좌교수·객원교수 임명식 및 국제교류 공로상 수여식이 열린다. 장재국 총장은 권영걸, 이코 밀리오레, 루딩방, 마이클 프린스, 구원시 등 세계적인 디자인 권위자 5명에게 석좌교수 또는 초빙교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어 디자인대학 국제화 비전 선포식 및 학술대회가 열린다. 5명의 석학들은 ‘Design as Change Maker’ 주제로 특강(Design Talks)을 하게 된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기능, 외양, 라이프 스타일, 행동, 사회문제 등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과 역할에 대해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9월 5일에는 센텀캠퍼스 아트스홀갤러리에서 권영걸 교수와 이코 밀리오레 교수가 공공디자인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탈리아와 한국 디자인의 두 거장인 이코 밀리오레와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김순구 디자인대학 학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을 초빙한 이번 행사는 디자인·IT·콘텐츠 등 우리대학의 특성과 분야를 월드 클래스

(World Class) 수준으로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동서대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동서대 디자인 교육은 확실하게 글로벌화·전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능력 향상을 위해 ‘2019 세상을 바꾸는 상상씨앗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일정은 8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아이디어 보고서 제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그래픽 패널 접수, 10월 25일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9일 응모자 발표회 후 10월 31일 최종수상자를 발표한다. 시상식 및 공모전 작품 전시회는 11월 5일이다. 상상씨앗 공모전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능력 향상과 과학적 해결을 요하는 융합적 아이디어 구현 능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공모전은 융복합 창의교육 교과목들과 ‘창의능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과정 역할을 한다. 이 공모전 수상자(1위부터 4위)에게는 총장상 300만원을 포

함해 총 12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동서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지만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가해야 하며 반드시 팀원 중에 공학계열 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김대용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다. 학생들의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기본 자산인 본 공모전이 계기가 되어 동서대학 전체에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창의 발상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대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D-MAP 동기부여 하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1학기 ‘D-MAP 동기부여’ 중 두드러진 활동을 한 우수학생 100명이 선발되었으며, 박성미 민석교양대학 학장, 이동운 교학부장, 김종필 종합홍보실장, 정주연 중국어과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6명의 인솔 하에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천안문광장 등을 탐방한다. 이를 통해 중국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왕푸징거리, 798 예술거리, 더플래이스 등에 탐방하여 현재 중국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출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이경미 중국어학과 교수와 이홍규 중국연구센터 부소장, 김영기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8월 28일 각각 ‘중국 문화의 역사’, ‘중국의 부상과 국제지세’, ‘중국 역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9월 4일에는 귀평 주부산중국어총영사와 정상기 건국대 석좌교수가 각각 ‘중국 기업과 기업문화’, ‘중국에서 나의 꿈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18일에는 3차 교육 및 중국 문화탐방 발표를 통해 해외연수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박성미 학장은 “지식 탐구와 해외문화 탐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동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며 “이렇게 많은 학생을 한꺼번에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동서대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nojik4@gmail.com

동서학원 관리직원 하계 위로연

관리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며



▶삼계탕을 먹고 있는 동서학원 관리직원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땀 흘리는 사람들의 노고 덕분에 대학이 언제나 아름다운 공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 등 동서학원 3개 대학의 관리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청소·보수 작업·교통안 내·경비 등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장재국 동서대 총장, 추만식 경남정보대 총장, 양상백 부산디지털대 총장은 관리 직원들을 위해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다.

8월 14일 경남정보대 학생식당에서 ‘2019년 동서학원 관리 직원 하계 위로연’을 열고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이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동순 이사장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 술에 만든 밥을 같이 나눠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행복한 일”이라며 “이런 인연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많은 곳에서 동서학원에서 일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20일 열린 ‘2019년도 하계 교

직원 연수회’에서 장재국 총장을 비롯한 모든 동서대 교직원들은 다가온 2학기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장재국 총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대학의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날 파워포인트 발표는 조대수 기획처장, 정찬영 입시처장, 최원일 교수처장, 한경호 국제처장, 이종익 대학 혁신본부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됐다.

장재국 총장은 우리 대학의 대응방향으로 입시 최우선, 탈락률 방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융합교육 활성화, 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장재국 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교육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평생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대경 기자
nojik4@gmail.com

사령

- 정기자-김태향(광고PR·3)
- 정기자-김민경(메카트로닉스공학·1)

‘2019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수료식

연구결과 발표회 및 수료식 동서대서 열려



▶아프리카 중남미 24개국 대학생 초청연수에 참여한 77명

한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생명공학기술 등을 배우러 입국했던 아프리카·중남미 24개국 대학생 77명이 5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수료증을 받았다. ‘2019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는 한국의 인문·사회·이공계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 장학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한 대학은 동서대학교(컴퓨터공학), 전남대학교(신소재공학), 전북대학교(동물생명공학), 강원대학교(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4곳이다. 4개 대학에서 연수받은 외국인인 아프리카 12개국, 중남미 12개국 등 24개국 학부생 77명이다.

동서대학교는 멕시코·파테말라·에콰도르·아르헨티나·브라질·코스타리카·콜롬비

아·볼리비아·도미니카·파라과이 등 중남미 10개국 대학생 20명(18개 대학)을 대상으로 5주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연수를 했다. 4개 대학에서 실시했던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에서는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고 멋있는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외국 학생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연구결과 발표회와 수료식은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동서대학교에서 열렸다.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는 각 대학별로 5팀씩 총 20팀이 한국에서 배우고 익혔던 결실을 발표했으며, 이중 4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동서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연수 받은 2팀은 수료식에서 우수연구결과를 직접 발표해 짧은 시

간에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줬다. 안나, 베로니카, 궤렌, 코르데로 등 4명으로 구성된 동서대학교 팀은 ‘쓰레기 수집 루트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쓰레기 통(SMART GARBAGE BIN FOR OPTIMIZING GARBAGE COLLECTION ROUTES)’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수료식에서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준 4개 대학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자랑스럽게 수료증을 받은 24개국 77명의 대학생들에게도 축하와 함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한경호 동서대 국제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회식을 한 게 었 그제 같은 데 벌써 5주간의 시간이 흘러 이별 하러니 좀 슬프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으로 믿는다. 한국에서 성취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곳에서 쌓은 기억들을 소중한 간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아시아를 잘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첫발을 디뎠다.”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에티오피아 수료생은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2019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7월 8일부터 5주간 강원대학교 초청캠퍼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여를 결심했을 때는 ‘내가 과연 한 달여 만에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째 주 동안 한국어연습과 튜터링, 그리

고 그룹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나라이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의 정치와 경제,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젠더(성) 등에 대해 배우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해졌습니다. 현장학습은 매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한국전쟁기념관과 DMZ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소중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고생했던 일도, 매일 올라가기 힘들었던 계단도, 그리고 에어컨 때문에 더운 여름에 추위에 떨었던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국립국제교육원과 강원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연수를 운요해주신 강원대, 동서대, 경남대, 전북대 운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앞날이 더 밝고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nojik4@gmail.com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

신산업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중인 송승근 교수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가 규제 개혁 유공자로 선정되어 7월 2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민간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 산업입지 혁신위원회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인공지능(AI)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분야 규제 개선 과제 41건을 검토해 관련 업계의 규제 예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했다.

규제 개선한 과제는 VR 테마파크 공간 규제 혁신, VR 체험시설 규제 개선을 통

한 VR 기기 작동 정상화, VR 시뮬레이터의 안전성 검사 가이드라인 제시, 온라인·모바일 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게임 규정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또한 송승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게임 관련 규제 정책을 심의했으며, ‘시뮬레이터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규제혁신 방안’ 등 게임 및 가상현실/증강현실(AR) 분야의 논문을 발표 했다.

‘ICT 기반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사업’ 등 3건 정부 용역과 제도 수행하는 등 규제 혁신 및 정책 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CT 융합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김대경 기자
nojik4@gmail.com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금상 수상

광고PR을 자랑하고 그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새신 신어! 세탁해줄게!

INSIGHT

신던 신발은 새 신발을 구매한 후에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재와 색상이 다양하여 개인이 세탁하기엔 까다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슈즈 멀티샵 ABC마트와 제휴를 통해 크린토피아의 운동화 세탁서비스를 이용하여 새 신발을 구매하면 신던 신발을 세탁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IDEA

신던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 주머니를 제작한다. 제작된 주머니를 신발 상자 안에 넣어 구매 시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신발주머니를 발견한 고객이 신던 신발을 주머니에 넣고 정보를 기입한 후 카운터에 맡겨 크린토피아 운동화세탁 서비스에 접수할 수 있게 한다. 신발을 수거하고 세탁한 후, 고객이 신던 크린토피아 지점에서 찾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PROCESS



① ABC마트에서 신발을 구매한다.



② 신발 상자 속 신발 주머니를 확인한다.



③ 주머니에 신던 신발을 넣고 뒷면에 고객정보와 수령할 지점을 적는다.



④ 카운터 접수 후, 안내문자를 통해 신장한 지점에서 세탁된 신발을 찾아간다.

▶ '새신 신어! 세탁해줄게!' 작품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한 번도 어렵다는 제일기획 공모전에서 5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 상상의 주인공 공은 정지원, 강지영, 표임지, 임성은 씨로 '새신 신어! 세탁해줄게!'라는 작품을 주제로 금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중 정지원 씨를 만나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에서 광고PR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정지원입니다.

Q.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일기획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제일기획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이번 3학년 1학기에 양웅 교수님께서 담당하신 '뉴미디어론'이라는 전공 수업을 수강했었는데요.

그 수업의 일환으로 제일 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아이디어를 출품하는 것이 있어서 공모전 참여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어요.

또 작년에 저희 전공 16학번 선배님들이 같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자랑스러운 경력 덕분에, 저와 저희 팀뿐만 아니

라 함께 수강했던 학생들 모두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아이디어는 [새신 신어! 세탁해줄게!]라는 제목으로 크린토피아와 슈즈 멀티샵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크린토피아의 신발 세탁 서비스를 더욱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슈즈 멀티샵에서 새 신발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신던 신발을 크린토피아 신발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뒷면에 간단한 개인 정보를 기입한 다음, 카운터에 전달하면 크린토피아에 접수가 되어 신발 세탁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와 서비스를 쉽게 연결해주는 프로세스의 아이디어입니다.

Q. 해당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 팀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부분은 총 2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일상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세탁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들이 필요한 크

린토피아의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가 저희의 Key point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크린토피아의 경쟁사는 개인의 집에 있는 '세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세탁물 중에서도 소재와 색상이 다양하여 개인이 세탁하기에는 까다로운 '신발'을 핵심 아이디어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린토피아의 서비스 중에서도 류나 이블 세탁은 이미 유명하니가 신발 세탁 서비스를 더욱 극대화해보는 건 어떨지 고민해보았는데, 2가지의 key point의 접점에 딱 맞게 되더라고요.

또, 신발과 세탁 서비스를 이어주는 도구로 소비자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발주머니도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제작하여 자연스러운 하나의 프로세스(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주시 수 있으신가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사실 최종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까지 소위 "짜 다 같이 읽는" 2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단지 크린토피아를 알리는 것에만 집중

하다 보니 단순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교수님께 '차원적이다.'라는 혹평을 받은 적도 있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까지는 도출했지만 '신발'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잡기 전에는 '어떤 상품의 브랜드가 크린토피아와 잘 어울릴까?'라는 고민에 잠도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꿀팁 아닌 꿀팁(?)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위 인터넷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소비자 A 씨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찾고, Key point를 잡는다면 더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었답니다.

Q. 제일기획 공모전에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A.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크린토피아와 조찬한 자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했고, 또 작년 수상작들을 보며 감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수업을 통해서 거침없이 조언

을 해주셨던 교수님의 피드백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큰 원동력이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피드백 중에서도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작지만 큰 배포와 큰 파급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조언은 아마 제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많이 되새기고 명심할 것 같습니다.

Q. 광고PR 전공자로서 해당 학과를 다니면서 꼭 경험해보야 할 것들, 혹은 이거는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까요?

A. 저는 아무래도 '공모전을 출전하는 것'이 수상을 떠나서 그 과정 자체로 큰 경험이자 광고PR 전공자로서 꼭 경험해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모전을 수업을 통해서만 나가기엔 아쉬운 것 같고, 혼자 준비하기에는 버겁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회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과의 선배배들과 친분도 쌓고, 연구회를 통해 얻는 많은 정보들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더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회 활동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학과를 다니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A. 저는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인쇄편 집실습'과 2학기에 연결되어 배우는 '영상 편집실습'이라는 두 개의 전공 수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동서대학교 광고PR전공으로 배우는 모든 수업이 너무 유익하고, 작년에 배웠던 전공 책을 다시 꺼내볼 만큼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두 수업이 자신이 생각한 디자인의 광고를 직접 제작해내는 '기술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써 지금 까지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나 따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학원을 다닌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더욱 어려웠지만 그만큼 값지고 유익하게 느껴졌던 수업이었습니다.

Q. 본인에게 값진 경험이 되어주었던 또 다른 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세요!

A. 이번 학기에 제일기획 공모전과 같이 준비했던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일명 KOSAC)'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올해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라는 타이틀로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상 해내는 게 주제였어요.

제가 원래 공의 광고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다른 공모전들과 비교했을 때에 훨씬 수월했고, 그 과정들이 모두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조원들과 함께 페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작은 아이디어로 대학 교내 페지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었는데요. 아쉽게 본선 진출은 못했지만, 감사하게 파이널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어요.

최근 저희 학과 선배님들과 친구들이 이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매년 저희 학과에서 열심히 수상을 하고 있으니,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현재 광고PR을 다니고 있는 후배에게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가 감히 조언 드릴 것은 없지만, 저번 학기 수업 중에 김현 교수님께서 조언해주셨던 것을 인용하여, '배움에 편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라는 학문을 전공자로서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많이 배운 거 아닌가?', '이것도 굳이 알아야 하나?'라는 자만심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고요. 하지만 매년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배움에는 끝이 없고, 교수님의 조언대로 편식하게 된 배움은 저의 부족함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할 수 있는 전공과목들은 최대한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요. 또 모든 졸업생분들께서 '전공에서 배운 모든 것이 실무에 쓰인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스스로에게 남는 것이니 수업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제일 기획 수상도 너무 값지고 귀하지만 수상을 계기로 인터뷰를 통해 저희 전공을 자랑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축하해주신 분들과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자극과 도움이 되어 함께 좋은 결과들을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서대학교 광고PR 전공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DMZ, 생태 박물관 숲으로 만나다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DMZ 해마루촌의 주민들과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모습

동서대학교의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DMZ 해마루촌에서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여름 디자인 봉사활동으로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패블릭디자인 앤 라이팅

연구소(소장 안병진 교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0년에는 마을 참고 아트 월 조성하고 마을 회관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고라니 조형물을 여러 형태로 설치하여 매년 상징화하였으며 기존 공원의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폐공간을 카페 '얕

았다 가세요'로 재생, 2017년에는 공터를 공공공간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8년에는 장고를 재생하여 'DMZ 평화 갤러리'를 구축하였다.

올해는 DMZ 지역이 생태 박물관 보호 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 그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마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2019년 디자인 테마는 '생태 박물관과 (숲)'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다양한 사인 조형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과 마을의 식단, 카페 갤러리 등 마을 전체가 '생태 숲'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 봉사활동으로 구성된 공간인 '평화 갤러리'의 '2018 DMZ 평화 포스터전'을 DMZ의 생태를 주제로 한 '2019 DMZ 생태 포스터전'으로 재구성한 21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갤러리 바카 스크린 프린팅 작업을 완성하여 갤러리에 관람객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안병진 교수는 "이 활동은 남북한의 평화와 인간의 가치를 우선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기다림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고자 시작됐다. 해마루촌에서 주민과 동시대 디자인대학 학생, 교수가 함께 해온 지난 10년의 결과물은 마을의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주민과 주민, 주민과

외부의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DMZ 해마루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DMZ 해마루촌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로부터 2km 떨어져 민통선 내 자리한 신행민 1세대를 위한 정착촌이다. 정부의 신행민 정착촌 조성 계획에 따라 파주시 동파리 일대 10만여㎡에 조성되었다. 이곳은 한국 전쟁 후 출몰이 통제되었으며 그 덕분에 자연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세계적인 보호대상지이다.

해마루촌은 마을이 조성된 지 불과 2,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모든 집이 초립식 철재 집으로 제작되어 유럽형 펜션의 모양을 하고 있다. 민통선에서 마을에 이르는 진입로 주위로는 온통 수풀이고 간간이 군 차량을 마주치긴 하지만 위의 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럽풍의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담장 없이 모두가 한 형제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성상의 마을 이름인 '수북 마을' 대신 해가 뜨는 마을이란 뜻의 '해마루촌'이란 이름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80가구 약 150여 명이 거주 중에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2019 국제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 학술대회

‘부산의 길 찾기 서비스 디자인’ 주제로 진행



▶ 학술대회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모습

'2019 국제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 학술대회 및 워크숍'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는 동서대, 전북대, 조선대, 일본 지바대, 중국 광둥공업대, 대만국립청중대가 참가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립사라왁대, 쿠알라룸푸르대, 국립 클란탄대, UiTM대 등 4개 대학이나 참가했다.

행사의 주제는 '미래 서비스 디자인의 교육 방향'이며 '국제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 협회' 회원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교육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서비스 이노베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아시아권 10개 대학의 학생 30명은 '부산의 길 찾기(Wayfinding)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주제

로 1주일간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아시아 10개 대학의 교수들은 서비스 디자인 교육 방법과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미래의 서비스 디자인 교육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제품-서비스 디자인 시스템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서비스 이노베이션 디자인 논문 35편과 포스터 논문 10편이 발표됐다.

동서대 아시아미래 디자인연구소의 장주영 소장은 개회사에서 "동서대는 국내 처음으로 서비스 디자인학과를 설립하고 융합교육을 선도해온 만큼 미래에도 서비스 디자인 교육 거점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산업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주현 KIDP 원장은 "이번 대회 개최로 센터와 세계에 알리고,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기초강연에서는 이진표 홍콩이공대 학장과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서비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각각 '인공지능 분야의 서비스 디자인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감사함’이라는 교훈 국제 기술 봉사단

방사선학과 4학년 노승환 학생 수기



▶세케티에서 노승환 학생이 숙한 팀의 모습

아름답고 행복했던 26일간의 여정을 쓰기에 앞서서, 제 글을 보는 4학년이 아닌 동서대 학우가 있다면, 본인이 국제기술 봉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기술봉사단에 속해서 제가 경험한 진귀한 8개월간의 시간은 저에게 여러 종류의 ‘감사함’이라는 교훈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24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항상 익숙한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당연한 듯 제공되는 음식과,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에 스며들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 생활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Mojokerto의 Seketi 마을 사람들과 8가지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한 COP 단원 26명이 3주를 가차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편안한 생활에서 거리가 먼 불편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충격을 금치 못하던 와중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나면, ‘제게 주어졌던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세탁기로 빨래를 하던 제가 양말까지 하나하나 손빨래를 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컨과 선풍기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3끼를 챙겨주시던 우리 사두아 이부(인도네시아 어머니), 룸메이트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무림과 함께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친해지게 되면서 무림은 아이들에게 점점 짓곳은 장난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나 유급되

었던 학교도 다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고, 항상 웃던 아이가 제가 마을을 떠날 때 표정을 보고 제 일 몰려왔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였고 Seketi를 떠날 때 엄청나게 아쉬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마을마다 4~5명이 조가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간의 팀워크,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몸을 담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던 부분인지라 출국 전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에도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불편한 생활을 마주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통이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툴툴 통치며 서로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고 걱정해주며, 힘든 일이 있거나 자신이 좀 더 잘하는 일이 있을 때 몸소 나서주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장님들의 희생 또한 단연 돋보였습니다. 마을로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보고사항에는 항상 본인들의 상태는 빠져있었습니다. 조장들도 하나의 단원인데 건강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바라는 기정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다난한 3주간의 봉사활동 후 조장들끼리 모여서 많은 스토리들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저 하나의 추억이라고, 우리가 겪



▶봉사활동 중인 노승환 학생

은 일들이 모두 앞으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고 별일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알게 모르게 쌓여왔었던 그동안의 걱정들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면서 몰려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1달간의 지나간 여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조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챙기던 조장들과, 그 조장을 열심히 서포트 해주며 따라왔던 단원들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함과 동시에 이런 보석같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느낀 점은 ‘경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원래 삶으로 돌아갈 때 즈음 파노라마처럼 지난 추억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리더로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한 평소의 불같은 성격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고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의 체계와 마감시간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이 COP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대해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최선의 대책을 요구하게 되면서 불만을 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화와 환경의 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화를 낼 필요가, 감정 남비의 불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원들도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지 않는게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했었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행으로서 마을에서 있었던 갈등 간의 해결을 하는 제 모습도 보면서 감정 조절과

말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과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3주간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한 결과물이 되었고 프로그램의 과정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2주가 지난 지금, 아직도 그 마을의 향토적인 모습이 아른거리고, 함께 지내면서 교육을 해주던 아이들과 같이 봉사활동했던 학생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을의 편의시설을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가던 과정들은 제가 했던 봉사활동 중에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불빛이 꺼진 마을의 밤에 태어나서 처음 본 은하수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해 준 선배가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한 평소의 불같은 성격이 천 번 만 번 이해가 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동서대학교와, 훌륭하게 역사를 이어주신 국제기술봉사단 선배님들에게도 많은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국제기술봉사단은 뿌듯함이며, 감사함이었으며 끊임없는 도전이며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경험을 품은 채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타국에서 1달 동안 동고동락한 24기 국봉이들! 다시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진짜 고생했고, 무시하 돌고와 췌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의 우리들의 만행으로서 마을에서 있었던 갈등 간의 해결을 하는 제 모습도 보면서 감정 조절과

2학기 맞이 새로운 도전!

2학기 동서대학교의 프로그램 소개



▶2019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사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원한다면 2학기에는 교외활동이나 대외활동 대신 교내에서 실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2학기, 학교에서 주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서대학교 하반기 프로그램

1. 동서 실전 창업체험 프로젝트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란 2014년 이후 5년째 개최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의 대표적 실전형 학생창업 지원 사업이다.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링크+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프로젝트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창업까지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창업팀 경진대회를 통한 시제품 개발, 전문가 멘토링, 시장 검증, IR 피칭, 모의 클라우드계별 실전창업 체험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300여 명의 학생 창업 유망 팀이 선발되었고 이들은 ‘실전 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동서대학교는 총 1억 원의 창업 장학금을 교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 과정에서 얻은 마일리지들 점수로 산정하여 우수 팀부터 차등 지급된다. 최종 우승 팀은 향후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특허 프로그램 지원 시 가점을 받는다.

2. 대학 일자리 센터 진로, 취업 동아리

대학 일자리 센터 동아리에는 여대생 동아리, 인문계 동아리, 창업동아리가 있다. 여대생 동아리는 금융, 마케팅, 디자인,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관광과를 우선으로 선별한다. 인문계 동아리는 취업 정보 공유와 자소서 및 면접 준비, 기업 및 직무 분석을 하는 동아리이다. 창업동아리는 멘토 기업 프로젝트 수행 및 창업 노하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2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개인 포함 그룹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우수 동아리 시상과 함께 활동비를 학교에서 지원해주며, 동아리 인원 40명을 선착순으로 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은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대학 일자리 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나 동아리 개발과 활동 지원 등 여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2학기를 맞이하여 지나온 방학이 회회되거나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학교에서 실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보고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쉽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망설임에 시도해보지 못했다면 내년을 목표로 도전해보기를 권한다. 아쉬운 한 해로 보내지 않도록 2019년 하반기에는 뜻깊은 도전을 시도해보자.

김태향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이’의 가치를 느끼다

DAIP 참가자 International Studies과 4학년 이지영 학생 수기



▶DAIP 우즈베키스탄팀의 단체사진

우즈베키스탄에서 12일은 기대 이상의 날들이었습니다.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은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는 그렇게 친숙한 나라는 아니라 저희 팀은 출발 전 모여 다양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에는 경호, 영상, 국제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전공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또 우즈베키스탄 친구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여행 일정 내내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때 역시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의 정보 덕에 저희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훨씬 더 풍부하고 알찬 이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동서대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인 DAIP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우즈베키스탄은 날씨만큼 아주 뜨겁고, 잠재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정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학업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위해 현지 기업과 공장을 방문했고, 일정의 대부분은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서 보냈지만, 역사적인 경험을 위해 실크로드의 중심지 하바(Khiva)와 사마르칸트(Samarkand)도 방문했습니다.

DAIP 일정 중에 저희 팀은 MAN-Auto(트럭 전문 제조 회사)와 Artel(가전제품 전문 제조 회사)이라는 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 및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권에서 아주 큰 기업이었습니다. 대학생활 중 처음으로 생산공장을 방문해보는 기회였고 생산공장의 담당자와 인솔교수님의 설명 덕분에 제 전공과는 다른 경영, 생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공이 인문과 가까운 저에게는 졸업 전 다른 필드에 대해 배우고,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같은 곳

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속에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우즈베키스탄 전부를 알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경제, 역사, 문화 등 대부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보며 점점 더 우리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 사진으로는 아직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때 그곳의 풍경, 분위기를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쉽지만 합니다. 사진이 그 모습들을 다 담지 못한다면 아쉬워하는 저에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순간을 오감을 모두 이용해 배우고, 즐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진취적이고 글로벌한 학교로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이런 것들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양한 전공,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항상 저희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일정을 준비해주시고 일정 내내 저희와 함께 즐겨주신 여현진 교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학업적인 경험과 또 여행이라든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2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가다

국제물류학과 3학년 전유정 학생 수기



▶교토산업대학 세미나를 마친 후 단체사진

7월 9일부터 2박 3일간 시행되었던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 교토 산업대와 동지사 대학교가 함께 시행하는 세미나로 본교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와 일본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담회를 통해 한층 더 가까이 교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물류학과 한철환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2, 3학년 전공수업 중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학년의 주제는 항만물류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2학년들이 주제는 글로벌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본 학생들이 준비한 것 역시 항만물류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한 발표가 있는 반면 한국의 뷰티, 드라마, 음악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역사라던가 일본의 기도노, 사케의 역사 등 자세히 찾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위주로 발표한 팀도 있었다.

첫째 날 간사이공항에서 내리서 기차를

타고 교토산업대에 도착하였다. 이전에 한철환 교수님께서 주최하시는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은 동지사 대학교에서만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토산업대에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토산업대의 재학생들과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한 달이 넘게 준비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토론을 하였다. 교토산업대에서 준비한 간담회는 변화의 한 이자카야에서 진행하였다.

둘째 날 동지사 대학교에 방문하였을 때는 100인이 넘는 전원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의 건물들과 과거 동지사 대학 영문학과에 재학하셨다는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었다. 동지사 대학교에서 역시 조원들과 준비한 'IMO2020'에 대해 발표했으며 준비한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많은 걱정도 되었지만 함께한 조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언어가 다르기에 대화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는 않았지만 발표에 대한 궁금점을 계속해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생각보다 상당 부분 알 수 있었기에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교류 및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언어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다음에 또 만나기도 약속하며 SNS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내려 교토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호텔에서 학교까지의 이동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와중에 한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여행지에서는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었고 처음 타보는 일본의 대중교통 또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을 위한 안내역시 잘 되어있었다. 심지어 일본인들과 같은 교통카드 충전을 하는 기기에도 역시 한국어 설명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한국인을 위한 설명들이 잘 되어있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단순히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다. 직접 겪어보지 못했을 때에 반해 가서 느끼고 배우고 보고 또 보여주고 왔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실수 없이 준비하였고, 준비한 모든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뜻깊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내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기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기서 배웠던 것들과, 앞으로 내가 배워갈 것들에 대한 학습과, 앞으로의 많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에 주신 친절함 교수님과 인솔해주신 미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풍경

역사를 쓴 이들의 역사



- 책 제목 : 역사의 역사
- 책 저자 : 유시민
- 출판사 : 들레베

이 책에서 의미하는 역사란 역사를 쓴 역사가들에 의해 쓰인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사마천, 이븐 할둔, 신채호, 다이아몬드 등 옛 고대의 역사가부터 현대의 역사가까지 지은 현대 많은 이들이 읽고 있는 역사 책들을 골라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는지 파헤쳐 보는 책이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가들이 써놓았던 글을 다시 모은 이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가공된 글을 배워왔다.

무엇보다 역사란 주제는 소설과 다른 면에서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마련이다. 정확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그저 교과서처럼 딱딱한 서술체보다는 누군가의 견해가 들어간 역사서를 읽고 싶었다. 그렇게 찾은 것이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는 책이다.

역사를 서술한 최초의 인물이라 불리 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는 역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였다. 그것은 마치 역사가 아닌 큰 전쟁이라는 배경으로 한 재미난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라 하였다.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폴리스들과 페르시아가 한창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었다.

반면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시절에 태어난 랑케는 역사를 전문인들만 읽은 것 같은 학술지에 쓰는 형식으로 역사를 기록하였다. 아주 형식적이고 딱딱하며 전문가가 아니면 흥미를 끌기 어렵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고증 사학을 주장하였던 랑케는 정말 역사를 첨가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헤로도토스와 랑케의 서술 방식이 다른 이유는 책에 나타난다.

헤로도토스는 돈을 모으기 위해 아테네 시장 골목에서 시민들에게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를 서술했다. 발단과 전개가 없는 어수선한 이야기는 듣는 맛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청중을 모으기 위해 헤로도토스는 데르모필레와 같은 위대한 전투들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요소를 도입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가 생전에 아테네 청중들에게 들려주었던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으로 쓴 것이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로도토스와 같은 이야기꾼은 하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최고의 직업이 아니었을까. 랑케는 왕의 풍족한 지원 아래에서 역사기록에 몰두했다. 책에 의하면 평생을 역사를 위해 살아왔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대학교수로 활동하면서 일평생을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청중을 모을 이유도, 공이 지식이 갖춰진 지식층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재미있게, 쉽게 지어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전 세계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읽고 기

록하기 바빴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역사 서술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역사 서술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역사의 역사』는 이렇게 왜 그랬을까? 같은 주제로 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간중간 인물들의 유쾌한 일화를 담고 있어 마치 한 권의 인물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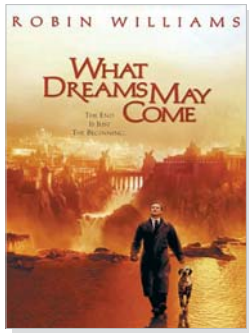
유시민은 이 책을 쓰면서 유명 관광지와의 프랑스 뒷골목 같은 비주류 관광지 하나하나를 읊미하는 자유여행이 아닌 2층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훑어가는 패키지여행과 비슷하다 하였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시민이 직접 번역한 부분도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잘 읽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세계사를 처음 접한다면 가볍게 읽고 넘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서양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폴리스들의 이름부터 사마천의 『사기』를 언급하면서 중국사도 언급된다.

필자 또한 세계사에 대해 깊은 상식은 없다. 그나마 읽기 수월하다고 느낀 곳은 제6장의 한국사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흥미를 갖고 읽어나갔다. 햇길처럼 다시 읽어보고 검색도 해보며 읽어나갔다. 역사서가 왜 쓰이고 역사가에 대해 한층 더 알게 되면 지금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역사의 역사>는 이해하기 위해 옆에서 도와주는 해설자 같다. 느껴질 책 속에 담겨 등장하는 역사가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견해들을 읽고 판단하며 그들의 일생이 담겨있는 기록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달의 영화—전국보다 아름다운

전국과 죽음, 그에 대한 색다른 견해



- 영화제목 : 전국보다 아름다운
- 영화감독 : 빈센트 워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전국보다 아름다운(What Dreams May Come)>은 1998년에 개봉한 고전 영화이다. 얼핏 제목만 봐서는 종교적, 특히 기독교 느낌이 뿜는 풍기는 영화라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는 사랑과 가족 이야기에 충실하다.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전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전국보다 아름다운>은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해 왔던 전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과 수수께끼에 대해 또 하나의 답을 던져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 크리스는 어릴 적 호수에서 운명적으로 아내 에니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영원히 평화로울 것 같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갑작스레 일어나 교통사고로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잃으면서 크리스와 에니는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떠난 지 얼

마 되지 않은 4년 만에 크리스마저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런 전생애 덕을 많이 배운 크리스가 눈을 뜬 곳은 전국이었다. 그곳은 생전에 큐레이터였던 아내 에니가 그린 그림 속의 한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유화로 그려져 살아 움직이고 상상하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곳에서 크리스는 옛 스승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딸과 아들도 만나게 된다. 더없이 행복한 크리스지만, 딱 하나, 에니를 만날 수 없다.

전국에서 기다리던 에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아이들과 남편의 죽음으로 남아 괴로워하던 에니가 자살하여 전국에 올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이제 크리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에니를 찾으러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전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제시되는 전국과 지옥의 관점은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경향과는 다르다. 보통 전국으로 간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잘 배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되어 왔지만, 영화에서는 오직 자신의 의지로 탈라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제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비참하고 뭔가 뉘우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전국으로 갈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에게 남은 미련이 없다면 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제시한 남다른 점이다. 크리스는 올곧은 길을 걸으며 자신을 믿어왔다. 가족만을 그리며 전국로 갔지만, 에니는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지옥을 갔다. 얼핏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

각이 들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에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크리스는 만감이 교차하며 말한다. “에니를 언제 볼 수 있죠?” 그러면 곁에 있던 스승이 말한다. “자살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 절대 못 봐.”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살은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간주하여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걸치고 정의했지만 대부분 다 부정적이라 거론되었다. 철학자인 칸트도 자살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 보았다. <전국보다 아름다운> 또한 그런 부분을 수용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만약 오늘날의 현대 미술보다 격동적이었던 고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봐도 손색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크리스가 에니를 그리워하여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생전에 에니가 그리고 있었던 작품이다. 아름다운 유화 속으로 빠져드는 크리스의 모습은 절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감동적인 사랑 영화에 아름다운 색감이 빠지면 느껴지는 무언가의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듯이 첫 장면부터 호수의 절경과 시작하여 고전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질지도 모른다. 전국과 반대되는 지옥도 엄청난 여운을 남겨준다.

여운이 길게 남는 등의 색다른 결말은 찾는데도 이 영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로빈 윌리엄스의 애절한 연기와 가족애가 느껴지는 영화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매력적인 고전 영화에 빠져보았으면 하고 바란다. 당신이 생각하는 전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

추석에 대한 모든 것



▷사진출처 - 네이버블로그 '행복한 앤'

9월 13일은 추석, 명절이다. 오늘날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방법에는 가족 또는 친척끼리 모여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추석을 지낸다. 다가오는 명절을 위해 추석의 의미, 추석놀이 등을 알아보고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추석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명절을 보내면 어떨까.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다.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명절이다. 추석이라는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을 지녀,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가위'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 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때로 가든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김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가지고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라 한다.'라고 언급한다.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석날 밤에

는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월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니 월석이니 하는 말을 합해서 축약하여 추석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추석에 행하는 의례로 율بة심리와 풋바심이 있다. 율بة심리란 주로 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율베 천신(율薪)을 말한다. 율기심리, 율계심리, 오리심리, 벼비심리라고 부른다. 율베란 '일찍 수확한 벼'를 일컫는다. 율계심리란 곡식은 다음 해에 씨로 사용하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를 비롯한 가신에게 올렸다가 먹는다. 율계심리는 이듬해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과 풍년을 예측하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옛날부터 제사를 올리며 풍년을 기원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석은 옛날과는 의미가 달라졌지만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보내는 것은 같다.

'추석'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추석 음식이 떠오른다. 추석의 대표 음식엔 송편이 있다. 옛날에도 송편을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율베 초하루인 머슴날 또는 설날에도 만들어 먹지만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사진출처 - 네이버포스트

솔네에서 온다는 말도 있다.

추석에 먹는 송편을 빚는 방법에는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햇녹두, 청대콩, 동부, 깨, 밤, 대추, 고구마, 꽃감, 계핏가루 같은 것을 소로 넣어 둥글게 빚는다. 이후 찜기에 찌운 면포를 올리고 송편을 엮는다. 물이 끓은 후 15분~20분 정도 찌면 송편이 완성된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찌 때에 커다라 솔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 쌀가루를 익반죽할 때 속이나 송기를 찌어 넣어 속송편이나 붉은색의 송기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래 송편이라고 한다. 오래된 율베를 뜻하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추석의 명절식에는 송편 말고도 토란국을 제사상에 올린다.

옛날부터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소놀이, 가북놀이, 소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를 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강강술래, 줄다리기 등에 대해 교과서로 배우기도 한다. 특히 추석과 같은 보름 명절에는 강강술래와 같은 원무가 중심을 이룬다. 한가윗날 보름달 아래서 노는 원무는 한층 운치가 있다. 추석놀이들은 단순한 놀이일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고 예측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강강술래를 포함하여 소놀이, 가마싸움 등 그냥 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뜻이 숨겨져 있다.

강강술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다.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한다. 또 정월대보름의 만월은 만삭의 여성으로 비유된다. 따라서 대보름날의 강강술래 놀이는 여성들이 풍요의 달 아래에서 논다는 의미에서 풍요의 극치를 의미한다.

소놀이는 명석을 쓰고 소 모양으로 가장 화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즐겁게 놀아주고 음식을 나누며 먹는 풍년 기원 놀이다. 소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존재로서 생구마 할 정도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가북은 십장생에도 등장하는 영물로서 수신과 농경 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놀이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가마싸움은 1900년대 초까지 경북 의성 지역에서 전해오던 서당 학생들의 놀이다. 추석 때 훈장이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비우면 놀이가 시작된다. 모처럼 글공부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모여서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놀이를 만끽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날엔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추석의 의미에 가장 맞는 것이 아닐까.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축제·공연·소식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 기간 : ~2019.10.06(일)
- 장소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이영마을을 뒀던지 일원
- 주최 :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기간 : ~2019.10.06(일)
- 장소 :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내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239
- 주최 : 안동시



2019 제26회 부산창업박람회

- 주최 : 선인커뮤니티(주)
- 기간 : ~2019.09.28(토)
- 장소 : BEXCO 제2전시장 4(D, E, F)홀



2019 바이브X장해진 THE CONCERT

[두남자 그여자]-부산

- 주최 : ㈜스프링이엔티, (주)월드쇼마켓
- 기간 : ~2019.09.29(일)
- 장소 : BEXCO 오디토리움



2019 제 15회 부산카페쇼

- 주최 : 주식회사블루케이
- 기간 : ~2019.09.22(일)
- 장소 : BEXCO 제1전시장 2B홀



2019 제66회 돌프리마켓부산

- 주최 : 돌프리마켓
- 기간 : ~2019.09.21(토)
- 장소 : BEXCO 제2전시장 4F홀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 기간 : ~2019.09.07(토)
- 주최 : 여수시
- 장소 : 이순신광장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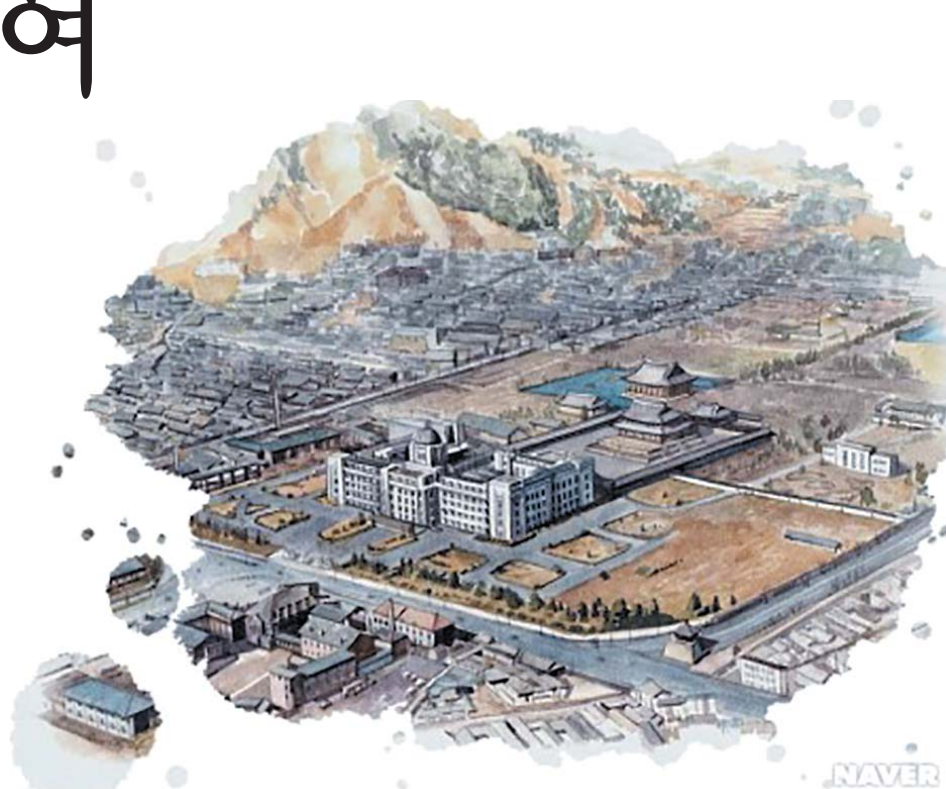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에 대하여



▶일제로부터 벗어나 최초의 건국을 한 대한민국의 모습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서 대응하는 대한국민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일제 강점기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의 민족 수난기이다.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 간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뒤 행정, 입법, 사법 및 군대까지 손에 쥐고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기 위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35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없애고 억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민족 또한 대한 독립을 외치며 끝까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독립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현대까지 한국 사회에 많은 병폐를 남긴 흑역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식민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세계적 관점에서 미미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나 이준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만국 평화 회의에 입장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리려 시도한 사건 등이 있다.

이 당시의 일제에 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은 그냥 '조선'(朝鮮)이었다. 경술국치 이후 옛 대한제국이 사용하던 '한국'(韓國)이라는 국명을 조선 왕조가 사용하던 옛 국명인 조선으로 고친

뒤 일본의 일개 지방 이름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메이지 43년 칙령 제318호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국호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이었던 "조선"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국가 성립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국호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괴뢰국도 아닌 외자에 국호를 두는 경우는 없다. 기존의 대만, 화태 등의 식민지에도 별도의 국호 제·개정 법령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국호 제정에는 대한제국의 말살 등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 연도(1910년)의 메이지 제령 5호에서 그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알 수 있다.

현대 일본에서는 경술국치를 한국병합 또는 일한병합으로 일제강점기를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 또는 줄여서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로 부른다. 일본제국령 조선(日本帝國領朝鮮) 혹은 일본령 조선(日本領朝鮮)으로도 불린다.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3분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10년씩 끊어 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 순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기(무단통치)

1910년~1919년

대개 경술국치부터 1919년까지 보는

데, 민족자결주의 대두 및 3·1 운동의 영향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며 식민통치 이념이 달라진 것을 기점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하는 태형령이 공포되었고, 헌병 경찰제도가 운영되었으며, 교원(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

■ 제2기(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1920년~1930년

제1기가 막을 내린 직후부터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1929년까지를 일반적으로 보며, 흔히 '문화통치기'라고 줄여서 부른다. 경제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헌병이 보통경찰로 바뀌었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신문과 도서에 대한 검열을 철저히 하여 압수·경간·폐간은 다반사처럼 악순환을 거듭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직장 추방·투옥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됐고, 민주지방에서는 유망민중이 교민회를 조직하여 자활을 모색했으며,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어 국내외에서 일본 요인의 암살, 파괴활동을 적극적

으로 펼쳐나갔다.

■ 제3기(병참기지화통치/민족말살통치)

1931년~1937년/1938년~1945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부터 제3기 전기로 본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 후기로 본다. 경제정책으로 전기의 남면복양, 후기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병참기지화정책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8·15 광복과 함께 만들어진 최초의 건국 준비 단계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점이다.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인민 대표들을 모아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발표한 뒤 해산하는 등 조선에 큰 힘을 부여했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 예컨대 교육과 직업 선택의 불평등, 사회·법제도의 불이익, 신민화 정책을 위한 민족문화의 말살 및 왜곡,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된 강제 징용, 산미증식계획 등 병참기지로서의 착취, 민간인 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 많은 문제와 얽혀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이다. 일제는 내선일체의 의무를 실시했는데, 이는 평등하지만

권리는 불평등한 것을 말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보면 해방 때까지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으며, 일제에서 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 뿐일 정도로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학위를 따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란 '매우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1938년까지 일제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학제가 달라, 구제중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로 '구제중학교 졸업자 미만'이었던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실제로 1938년까지 일제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학제가 달라, 구제중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로 '구제중학교 졸업자 미만'이었던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반대학에 설치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비슷한 류큐어를 사용했다. 이 문화는 아직까지 '비국민, 비천황, 반국가적이다.'는 차별과 증오가 많이 남아 있을 정도로 불평등한 기준을 넘어 국민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를 파괴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한국과 북한에게 나쁜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치메 문화와 임시 위주 교육, 병영부조리,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비민주적 정당정치 문화 등이 있다. 이 유산들은 군사독재와 결부되어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지금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좋지 않은 유산이 꽤나 많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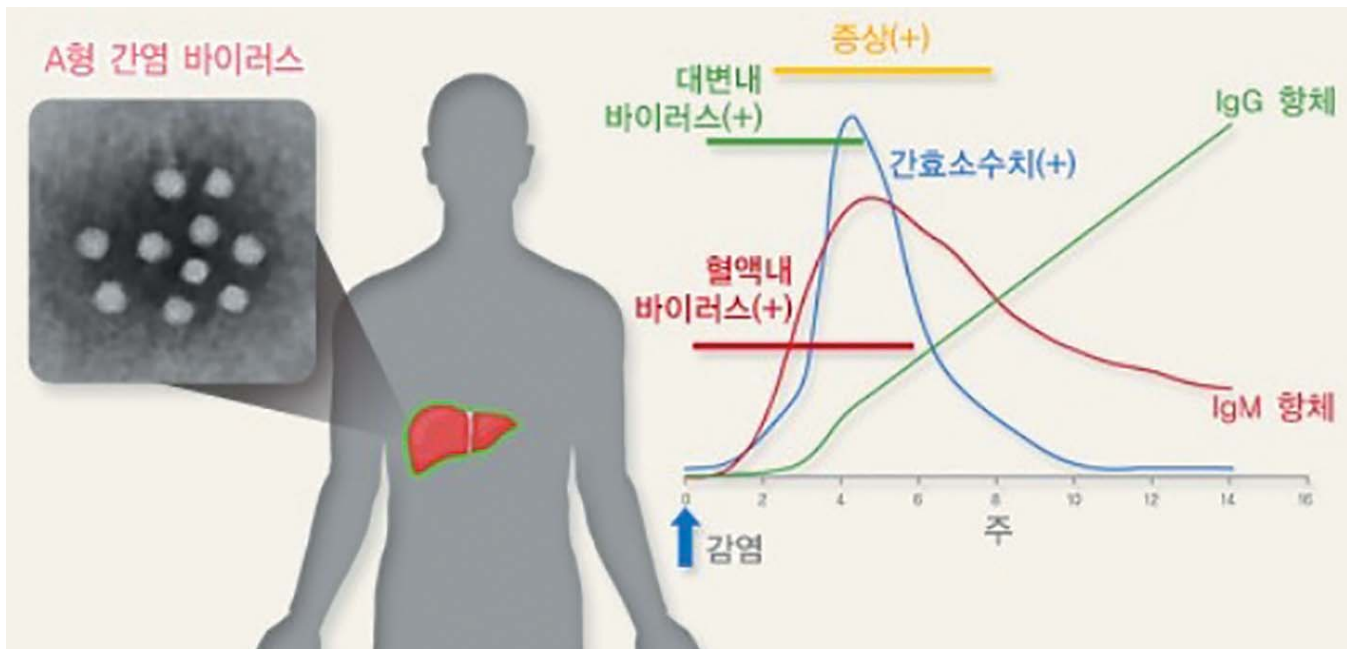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의 제도적 구분은 단순히 일본인과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곳에 있는 사람들과 정식 영토가 되지 않은 곳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에게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사할린, 조선, 대만처럼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신민 취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어와 비슷한 류큐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국민, 비천황, 반국가적이다.'는 차별과 증오가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일삼았지만 국민들의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암흑기를 거쳐갔던 만큼, 우리는 현재로서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일제의 만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와 배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주의! 9월에 조심해야 할 것!



▶a형 간염 증상

더위가 차차 풀리고 하늘이 드높은 가을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 즈음엔 명절을 앞두고 여러 질병들에 위협을 받는다. 특히 지난 8월, 부산에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a형 간염의 증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a형 간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 감염된다. 전염성 또한 매우 강해 환자와의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 단체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 평균 30일에서 길면 50일까지의 잠복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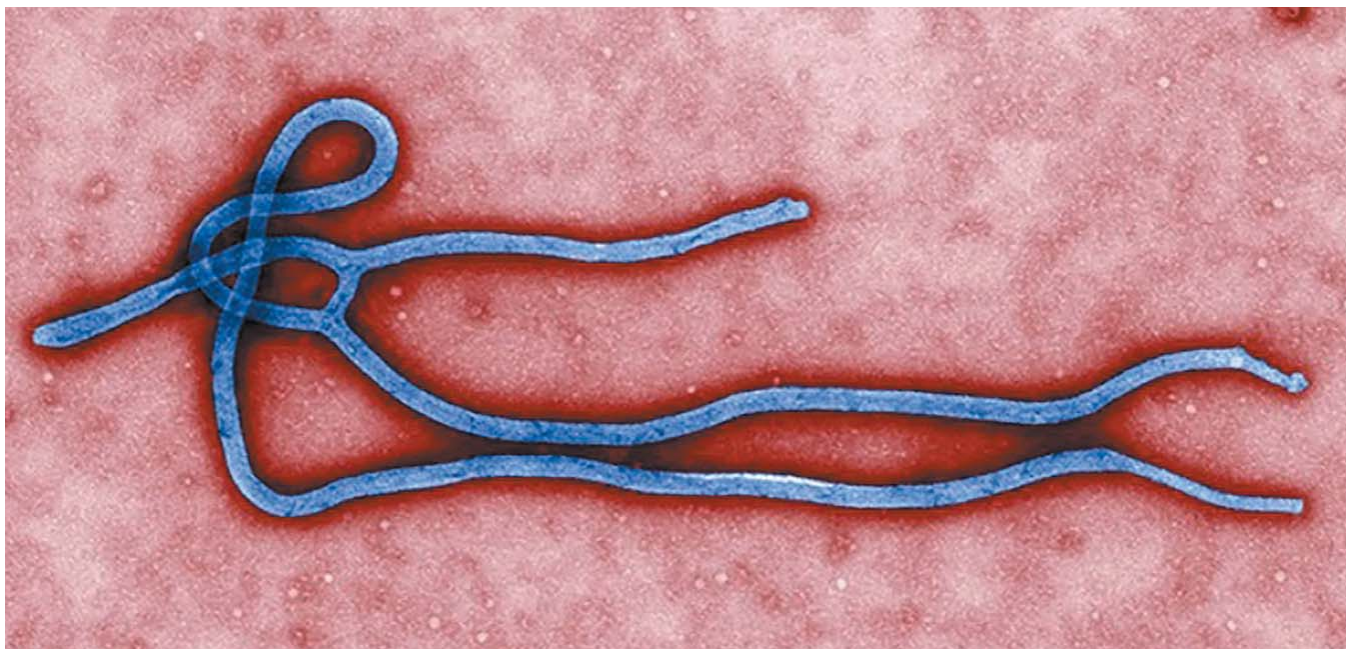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식욕 저하, 구토, 복통, 설사 등 다른 질환과 유사하지만, 1차 증상 후 일주일 이내 황달 징후가 발생하며 소변이 옅다 색으로 변하거나 전신 가려움증 등이 추가로 보인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 배설물 격리 및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통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 1분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끓인 물과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 씻기와 예방 접종

을 받는 것이다. 의료인, 외식업 등 a형 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려면 예방 접종은 필수다.

또한 지난 8월 말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새로운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나 에볼라 사망자의 체액·혈액, 환자의 체액으로 오염된 물체 등을 통해 전염된다. 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 또한 천여 명이 넘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자 현미경 사진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증상으로는 잠복기가 가장 최선이다.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피치 못하게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기타 분비물이 묻어있는 시트나 의류, 생활용품 등에 의해 옮을 수 있으므로 외출 이후에는 소독 알코올과 비누 등으로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

수밖에 없다. 제일 좋은 예방법은 이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피치 못하게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기타 분비물이 묻어있는 시트나 의류, 생활용품 등에 의해 옮을 수 있으므로 외출 이후에는 소독 알코올과 비누 등으로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

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손 씻기, 예방접종, 최근 발생한 유행 감염성 질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블로그, 세계일보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정성영 수습기자
duddk1015@gmail.com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수강 신청과 스스로 짜는 시간표, 50분을 넘아가는 강의, 선생님이 아닌 교수님, 자유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인간관계 등. 본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들 대학생이 된 후 첫 방학을 간절히 기다렸다.

기말고사를 치를 때는 결승전에 통과하기 전, 마지막 스피드를 내는 스프린터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물론 본인도 아니었다는 말할 수 없다. 시험을 치는 내내 종강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막상 종강하고 방학이 되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새로운 목표가 없으니 의욕이 없었다. 동기들과 놀 때도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특히 이 현상은 교회 청년부에서 일본으로 단기선교를 하러 간 후 더 심해졌다. 여러 가지 선교 준비와 일본의 선교지에서 통역을 맡기 위해 공부했던 일본어 회화와 JLPT도 선교를 다녀와서는 더 이상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 이런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빈 아웃’이라는 말을 찾아냈다. 꼭 내 이야기 같았지만 어렵게도 극복하기는 너무 귀찮은 탓에 10월 가까이 빈둥거리기만 했다. 그렇게 자랄수록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면서 미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현실 생

2학기를 준비하며

정해돈 (국제통상물류학부·1)

활에서 불만족을 느꼈다. 그러던 중에 1학기 전공 강의 중에서 경영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인간은 일정 이상으로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이나 활동을 원하게 된다는 말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반절을 훌쩍 지나가 버린 짧은 방학에 말이다. 종교학과 시절 자신이 방학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떠올려보지만, 그곳에도 열심히 놀던 나 자신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무책임한 미성년자의 마음가짐으로 지낸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발전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고등학교 시절의 나와 차이점을 두어야 한다. 변화를 그치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벌써 어른이 된 기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우선 지금부터 많이 떨어진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개강을 하 있을 때 즉, 2학기를 어떻게 계획하의 계획과 준비를 하기로 정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가 1학기를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A4용지에 글을 써왔다. 비교적 자유로운 1학년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려 하지 않고 쓴 것, 공부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독서 클럽활동을 위한 책

이외에 책을 읽지 않은 것 등등. 나열하자면 1시간도 걸릴 만한 후회 거리와 아쉬운 점이 적혔다.

하지만 여기서 과거에 매여 자신을 책망하기만 한다면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때까지 적은 많은 항목에 해결 방법을 코멘트 형식으로 적기 시작했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깨달았으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그 한 발자국이며, 전혀 어렵지 않았다. 이번 학기에는 일주일에 3번을 정하여 영어 공부를 할 계획도 세웠고, 공강에 아쉬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곧 아르바이트도 해 볼 예정이다.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저녁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이번 방학 동안 뚜렷이 한 것은 없다만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재정비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변명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과도한 휴식 다음의 자기반성의 시간은 정말로 도움이 된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친 다른 사람들도 너무 놀라버렸다고 자책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과정을 겪기를 바란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죽비소리

개강, 조금 더 천천히

김형건 (방송영상전공·1)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이번 방학에는 바쁜 생활을 하며 지나치게 빠른 템포로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지친 시험기간에 기말 과제와 시험이 끝나고 무엇을 하며 지낼까 생각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며 즐기던 1학년, 첫 알바도 해보고 사회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면허도 도전하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무 살의 첫 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것들에 도전하며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어쩌면 1학기보다 더 바쁜 생활을 보냈다고 느꼈다.

한참 대학에 입시와 수능공부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연필을 잡고 종일 교과서와 문제집만 풀던 이전의 방학과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대학생활이 되고나서의 방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한 두 달 동안, 인간관계에 있어 발전은커녕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정말 없다고 느꼈다. 도전한 목표들은 성공적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남은 것은 딱 그 뿐이었다고, 막상 남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 허무했다. 그런 부정적인 공허함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낯선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만남이 즐겁다고 느껴졌던 예전의 내가 아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점차 기신적이

고 정돈된 멘트가 사람들과의 대화가 전부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즐거움을 얻었던 것 중 하나인 아르바이트까지에도 영향을 끼쳤다.

똑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간의 단순한 대화에 지쳐있던 나는 잠시 이곳에서 벗어나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다짜고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가식적인 행동과는 반대로 나를 반갑게 여겨며 나의 안부를 물었다. 또한 ‘내일부자’라는 가식 없는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 빈 공간을 타인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채워줬던 순간이었다.

올라간 안에서만 안부를 주고받던 친구들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지속된 만남은 점차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놀러다니는 기회도 많아졌다. 그 기회들은 나에게 생활 속 안에서 느꼈던 우울함과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람과의 만남을 서로의 생활권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합리화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 다시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봐야겠다는 반성을 했다.

방학생활을 했던 나를 돌아보면 첫 방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많은 것들

에 도전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쓸데없는 성취감에 취해있던 것 같다. 물론 오직 ‘효율성’만 생각하며 많은 것들에 도전해보고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천히 부지런하게 가는 사람들이 풍경은 보듯이, 이 마음가짐으로 최소한 나는 2학기의 템포를 좀 늦춰볼 생각이다.

이제는 방학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사소한 만남 이후로 지인들과의 연락은 조금 더 자주하려 노력하려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가짐 또한 새로 잡고, 유의미한 마주침은 없음을 명심하고 조금씩이나마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곧 개강을 하려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낯선 사람들과 활동을 하며,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많은 교류를 해보고 싶다. 또, 타 동아리나 학부에서는 ‘멘토-멘티’ 개념을 이용해 처음 접하는 선배배려의 교류를 추진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다. 꼭 멘토-멘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더 많이 얻고 싶다.

이제 겨우 8학기 중 두 번째 학기에 불과하지만 무언가를 놓쳤다는 후회보다 나의 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보다 더 성숙해진 시작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조금은 천천히 개강을 맞이할 것이다.

이달의 명언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벤자민 프랭클린(미국의 정치인)

적대로 고개죽 땀구지 막다.
고개죽 치켜들고
세상을 독바로 바라보라.
—렉센 켄터(미국의 교육가)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은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네 컷 만화

여름방학

개강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희, 한희와 하서(진 머리), 경찰행정학과 지은(왼쪽)은 펴의 학교생활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사 설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그러나 계절에 상관없이 매년 공공 열어 들어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취업시장이다.

요즘 취업시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뉴스나 신문에서는 취업시장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며 취업 준비생, 이른바 취준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2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한 후, 각종 공모전, 자격증, 현장실습 등을 통해 스펙을 쌓아도 수많은 기업들 중 이렇게 열심히 한 취준생을 받아줄 기업은 현저히 적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 스펙 취준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어릴 땐 대학을 위해 쉬 없이 살아왔다면, 대학을 졸업한 지금은 취업을 위해 쉬 없이 살아가고 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더

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 취업시장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취업상황을 위해 취업상담,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교본비 지원, 취업설명회 등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회사들과 정부의 지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취업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떠한 기업에 들어가 그 기업의 일원이 되어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지금 현재 세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SNS에 의해, SNS에 의존한 채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연예인만큼의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직업, 유튜버, 최근 손흥민, 김연아

를 의미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버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수 십만, 수백만 명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란 단어 자체가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직까지 ‘인플루언서’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인플루언서’를 직업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불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지금 현재 세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SNS에 의해, SNS에 의존한 채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연예인만큼의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직업, 유튜버, 최근 손흥민, 김연아

를 의미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버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수 십만, 수백만 명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란 단어 자체가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직까지 ‘인플루언서’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인플루언서’를 직업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불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지금 현재 세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SNS에 의해, SNS에 의존한 채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연예인만큼의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직업, 유튜버, 최근 손흥민, 김연아

로 제품 매출이 오르고, 인지도가 낮았던 브랜드도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한 다. 인스타 스타들은 자신의 계정에 제품 사진 하나 올리는 것, 브랜드 이름 노출시키는 것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일상,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입고 다니는 옷,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그것들은 매년 화제가 된다.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다.

연예인이 아닌데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SNS 하나로 만들어진 일이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과연 어떠한 직업이 생겨날지, 사라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다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 하루빨리 취업시장이 좋아지기를, 취준생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다린다.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금년도 표어가 의와 진리로 새사람을 일으키라(엡4: 24)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하여 바울 사도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 이해관계로 관계를 가지면서 끼리끼리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로는 국가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당파와 편당 등 끼리끼리 문화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된 질서라고 하신다. (갈 5: 19-21)

서로서로의 캠퍼스 문화

동서대학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이기에 어떤 계열과 계파와 호불호에 따라 끼리끼리 문화가 속에서는 세계를 품는 미래의 인재 양성의 대업을 이루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을 학기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카네기연구소 최영순 소장의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미국 살리콘 밸리에서 인포테크 등 4개의 IT 업체를 성공시킨 성공한 벤처기업가인 스티브 케이스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 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IT 사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며 “요즘 나에게 공학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을 택하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며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15%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예를 들면 변호사라면 아

주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어서, 회계사라면 회계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즉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풀어 내시면서 서로서로를 강조하셨다. 요 13: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서로서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대우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으로 끼리끼리에서 서로서로의 관계로 공동체를 새로운 인간관계 양방향 시스템과 질서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엡 2: 12-19)

기독교라는 종교 공동체는 분파와 교파로 교권 싸움으로 비난을 받지만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서로서로의 문화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든 동서인은 끼리끼리의 옷을 벗어 버리고 서로서로의 옷을 입고 가을학기 소임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게 아니라

실때 두려움 낙담 무기력 걱정 절망

뒤돌아 자신을 비추는 빛을 보는 한 학기 어떨까요?

열정
사랑
행복
기대
희망
만족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9 보훈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09.30 (월)
• 응모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창업 지원 공간,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 접수기간 : ~09.27 (금)
• 응모분야 : 대외활동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독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자원활동가 모집
• 접수기간 : ~09.29 (일)
• 응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만 19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메일문의)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제2회 팩트체킹 공모전
• 접수기간 : ~09.20. (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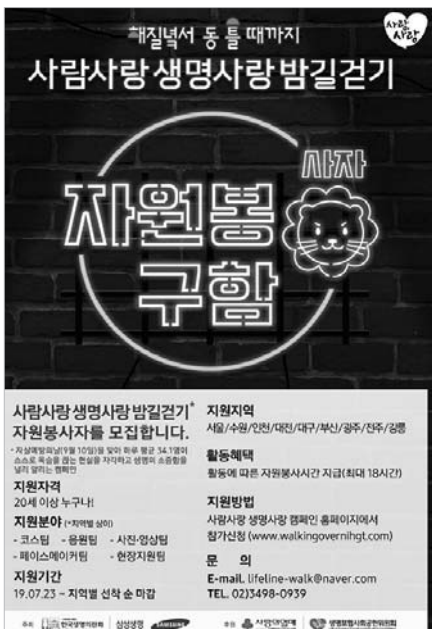
- 한국자산관리공사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10.13. (일)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삼성디스플레이 재능나눔 모집
• 접수기간 : ~09월 16일 (월)
• 응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제6회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10.01. (화)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사람사랑 생명사랑 바길걷기 자원봉사자 모집
• 접수기간 : ~10월 5일 (토)
• 응모분야 : 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씨티 글로벌 월렛 체크카드 광고공모전
• 접수기간 : ~09월 30일 (일)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부산경매공원 30초 영화제
• 접수기간 : ~09월 29일 (일)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 에세이 공모전
• 접수기간 : ~09월 15일 (일)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 공모분야 : 공모전



-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 공모일정 : ~ 09월 19일 (목)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공모전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등 :

화 :

가 :

친 :



땀땀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새 학기와 함께 9월을 맞이하였다. 짧은 옷들을 정리하고 긴 옷을 꺼내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등화가찬’은 등불을 가까이하여 책을 읽기에 좋다는 의미이다. 하루에 읽고 싶은 책을 읽어 나가면 후에 마지막 장을 넘길 때의 쾌감은 더할 나위 없이 없을까. (예시)

등 : 등불 같은 밝음으로

화 : 화평한 나날을 보내고

가 : 가시밭길 가득할지라도

친 : 친절했던 그 미소 잃지 말기를

-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9월 27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

DSU 동서대 신문기자협회

cyWORLD

동서대신문사 ▼

| 수습기자 모집 일정 |

- 일반기자(대학단신, 기획/특집, 글로벌, 취업, 문화)
- 동서대신문사에 관심있는 동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교내 각 식당 및 동서대신문사 내 원서배부
- 지원 : 9월 2일~9월 20일까지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드립니다. - 동서대신문사
- 문의 : Tel) 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4760-3385(편집국장)

9월 20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